

전주수목원 진입로 추가 개설한다

전주시, 내년 6월까지 월드컵경기장 진입 부근에서 수목원 입구 650m 구간... 진입로 정원길 조성

전주수목원에 가기 위해 좁은 지하 통로를 지나야만 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가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수목원으로 곧장 갈 수 있는 진입로를 새로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반월동 807-4번지 일원에 전주수목원 추가 진입로를 조성하고, 이를 정원길로 꾸밀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기업에서 비영리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수목원인 전주수목원은 시설 면적 29만1795㎡에 190과, 3737종 등 다량의 수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약 65만 명이 찾았던 지역 관광명소다.

하지만 수목원에 가기 위해서는 월드컵경기장과 전북CBS 앞을 지나 좁은 지하통로를 통과해야만 해 도심에서 너무 밀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수목원의 진입로를 추가로 개설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와 함께 계절별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진입로는 월드컵경기장 진입 부근(은고을로)에서 수목원 입구까지 연장 650m로 개설된다. 시는 진입로에 풀밭, 수목, 산책나루 등을 식재해 보행친화적 휴식공간인 정원길을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는 내년 6월까지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반월동 807-4번지 일원에 전주수목원 추가 진입로를 조성하고, 이를 정원길로 꾸밀 계획이다.

현재 시는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 단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착공할 방침이다.

시는 정원길이 조성되면 봄·가을철 협소한 주차장으로 불편을 겪던 관광

객들이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주차하고 정원길을 활용해 전주수목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수목원에 가는 길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

원과 같은 거리로 조성해 도심 속 휴식 공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토지매입이 필요한 만큼 해당 주민들에게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탄소중립, 우리도 함께 실천해요!

전주시, 야호 아동정책참여단과 탄소중립 바로알기 워크숍 가져

아동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전주시 '야호 아동정책참여단'이 '2050 탄소중립' 바로알기에 나섰다.

전주시는 18일 야호학교에서 8~13세 아동으로 구성된 야호 아동정책참여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우리도 함께 실천해요!'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50 탄소중립'의 의미를 바로 알고 기후위기 속에서 아동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서 참여자들은 에너지·환경 분야 전문가와 함께 '미스 크, 너의 정체는 뭐야?'를 주제로 ▲나무와 숲 ▲소중한 물 ▲지구 환경 지키기 등에 대해 토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각자의 실천 방

법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아동은 "워크숍 참석 전까지 탄소중립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통해 일상 속에서 꾸준히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옥 전주시 야호아이놀이과장은 "아동들의 실천 하나가 기후위기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각 가정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탄소중립 실천이 습관화되도록 아이들과 함께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 야호 아동정책참여단은 지난 6월 8~13세 아동 102명으로 구성된 놀이터 등 평소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인도·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전주시 완산구, 자전거 교통순찰대 활용 계도기간 거쳐 과태료 부과

전주시 완산구청(청장 김병수)이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이용해 야간에 인도 및 자전거 통행을 위협하는 인도 및 자전거도로 위 불법주정차를 일제 단속한다.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지난 2016년부터 근무 취약시간대(평일·휴일·야간) 및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에 서부 신사거리, 객사길, 풍남문 등 이동식 차량 및 고정식 CCTV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교통 취약지역에 대해 단속을 진행해 왔다.

올 상반기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3417건이며 부과금액은 1억2천만 원 정도다.

이번 자전거 교통순찰대 특별단속지역은 완산구 효자동 일대로 완산구청으로부터 반경거리 2KM 거리(완산구

청 사거리~전주대학교 방면, KT사거리~효천지구사거리)이며, 하반기 중앙동 및 평화동 일대 등으로 구획을 나눠 순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완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해 단속 대상지역 주변 현수막 게시 및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지고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완산구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은 "인도 및 자전거 도로 불법주정차는 안전과 여러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완산구청은 시민의 보행 불편 및 안전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인도 및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즐거운 책육아 위한 그림책 놀이 비법'

전주시립 평화도서관, 내달 4일 영유아·초등학생 부모 대상 특강

전주시립 평화도서관이 영유아 및 초등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즐거운 책육아를 위한 그림책 놀이 비법'이라는 주제의 특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다음 달 4일 진행되는 특강은 영유아 때부터 부모와 함께 독서 습관을 기르는 책 놀이 프로그램인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특강에는 '꿈꾸는 아이의 그림책 놀이'의 저자 우기운 작가가 참여해 생각하는 힘과 창의력이 쑥쑥 자라게 하는 그림책 놀이 비법을 전수한

다. 주요 내용은 ▲유아부터 초등까지 책육아 로드맵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고르는 방법 ▲그림책 읽으며 아이와 대화하는 법 ▲도서관 육아의 장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림책 놀이 등이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화도서관(063-281-642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재난안전 업무에 드론 활용

전주시, 급경사지 64곳 드론 영상 촬영 시각화 자료로 구축키로

전주시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낙석·붕괴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의 영상데이터를 드론으로 구축한다.

시는 다음 달까지 아중호수 인근 등 지역 내 급경사지 64곳을 드론 영상으로 촬영해 재난안전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드론 영상 촬영지는 아중호수 인근, 금암고등학교 인근 등 덕진구 24곳과 오목대 인근 오목교 등 완산구 40곳이다.

지난 3월 항공안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드론 운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양성해온 시는 재난 위험지역을 드론으로 직접 촬영한 뒤 전주시 공간정보

시스템에 시각화 자료로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재난 안전관리 업무 계획을 수립하거나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재난안전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은 물론 재난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곳곳에 재난발생 요소가 숨어 있는 상황"이라며 "드론 촬영을 통해 재난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